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들, 락랑구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장을 산뜻하고 멋있게 잘 지었다고, 건물들과 주변환경이 깨끗하다고, 수도의 면모에 어울리게 건설을 정말 잘했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품건본실, 재단작업장, 재봉작업장, 포장작업장, 과학기술보급실, 통합조종실, 기술준비실, 도안창작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품건본실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는 각종 남녀학생 가방들을 진렬해놓았는데 공장에서 우리가 생산한 가방천과 부속자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취미, 기호, 미감에 맞는 여러가지 형태와 색깔의 가방들을 잘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재단과 재봉, 인쇄, 날염,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 레이자재단기를 비롯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쁘히 갖추어놓았다고 하시면서 평양가방공장을 일떠세우면서 설비의 국산화비중을 95%이상 보장한것은 대단한 성과이라고 하시였다.

종합적인 가방생산기지답게 기술준비실과 도안창작실도 잘 꾸려놓았으며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보다 원만히 할수 있도록 공장의 실정에 맞는 통합생산체제도 훌륭히 구축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완성제품창고에는 가방이 그득히 쌓여 있고 원자재창고에는 김정숙평양방직공



장과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 등에서 생산한 가방천과 자크, 레프를 비롯한 원료와 자재들이 가득 차있는데 정말 흐뭇하다고 하시였다.

평양가방공장을 일떠세우면서 설비제작과 로동자들에 대한 기술전습을 동시에 밀고나감으로써 건설이 끝나는것과 함께 생산을 시작하여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가방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상표를 특색있게 만들데 대한 문제, 질제고에 큰 힘을 넣어 공장제품을 인기상품으로 만들데 대한 문제, 가방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할수 있게 도안창작을 잘할데 대한 문제, 연령신체적특성에 맞게 가방의 규격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킬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보급실운동을 짜고들며 설비들을 적극 애호관리할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가방공장이 일떠선지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가방사태, 가방풍년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일떠세운 공장에서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가방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별세상에 와본것같은 오늘을 잊지 못할것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힘으로 교복과 학습장, 교과서는 물론 질좋은 가방까지 생산하여 아이들에게 안겨주는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힘겨워도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만든 멋쟁이 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은 우리가 만들어 안겨주어야 그들이 자기것을 귀중히 여기는 참된 애국의 마음을 간직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평

양가방공장은 보배공장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가방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교양구역, 생산구역, 생활구역의 계선이 명백하면서도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건설하였는데 설계도 잘되고 시공도 나무랄데가 없다고, 멋있다고, 마음에 꼭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각도들에 가방공장을 현대적으로 잘 건설하자고 하였는데 평양시가 당정책관철의 기치를 제일먼저 들었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증시하는 문제를 정확히 포착하고 대중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총동원전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고있는 평양시당위원회 사업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에서 바라는 일이라면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남보다 먼저 최상의 수준에서 기여이 끝내고야 마는 평양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전투적인 일본세에 의해 평양가방공장과 같은 희한한 창조물이 보란듯이 일떠설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변을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해전투에 진입한 평양가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열의가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자기 자식들의 가방을 만드는 심정으로 가방생산에 정성을 다 바침으로써 맡겨진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